참된 인간 조건… 계율 철저히 지켜라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홍일대사 지음 | 전영숙 옮김 | 불광 펴냄 | 1만4천원

홍일 대사는 속명으로 이숙동이다. 1880년 중국 천주 하동에서 거상 이소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회화, 음악, 시 등 거의 모든 예술 분야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성장했다. 이뿐 아니라 신분에 따른 차별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반기를 들고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을 비판하며 사회변혁 운동에도 참여했다.

1916년 여름,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단식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식을 하는 20일 동안 스님의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던 이숙동은 1918년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단 몇 벌의 옷만 챙겨 항주 호포사에서 랴오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홍일 대사는 여러 사찰서 초청 받아 강연할 때마다 계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청중을 독려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의복은 늘 소박하고 가지런해야 하며, 신문을 읽지 말고, 항상 노동을 해야 하며,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홍일 대사는 말년에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접대받는 승려'로 살고 있음을 참회했다.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다니며 곳곳마다 사람들의 예배와 공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명예를 탐하고 제 몸만 돌보는 꼴이라는 반성이었다. 연회 참석을 줄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열다섯 살 소년에게 받고 문득 깨달아 일체의 연회 참석 요청을 거부할 줄 아는 홍일 대사. 그는 진정 자기 수행에 철저했던 위대한 고승 대덕이었다.

서른아홉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해 원적할 때까지 철저히 계율에 맞춰 삶을 보낸 고승 홍일 스님은 근대 중국서 허운, 태허, 인광 대사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4대 고승

홍일 스님, 중국 4대 고승 중 한 분
평생 계율에 맞춰 철저히 수행
스님이 뽑은 101가지 명구도 소개

으로 꼽히지만 한국서 홍일 대사를 다룬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책은 홍일 대사가 직접 써내려간 글을 가려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 스님은 탁월한 예술가의 삶을 버리고 출가를 단행한 이유, 계율과 염불을 중시하는 불교관, 인생을 단련하고 죽음 앞에 당당해지는 방법 등을 전한다. 중국서 남산 율종의 11대 조사로 받들고 있는 홍일 대사.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대사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인간의 조건'을 떠올려보게 만든다. 이 책에는 불교 이야기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특히 1부에 수록한 단식일지는 홍일 대사가 출가하기 2년 전 신경쇠약증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20일간의 단식 체험이 담겨 있다. 단식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단식 중 보이는 증상, 단식 중에 마음 다스리는 방법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단식을 계획 중이거나 단식을 하고 있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부를 마칠 때마다 명구들을 수록했다. 이는 1941년 홍일 대사가 서선사서 산문을 닫고 은거했을 당시 불경이나 고승 대덕이 남긴 말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정리해둔 것이다.

모두 101가지 명구가 실려 있는데, 구절 하나하나가 인생에 대한 날카로우면서도 따스한 통찰을 담고 있어 삶의 지침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홍일 대사의 즉문즉설

홍일 대사는 강연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고서 그에 성실히 답해 청중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그 수많은 문답 속에는 홍일 대사가 바라본 불교의 고갱이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문: 인생에서 부딪히는 역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고통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업장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청정한 서원이 더 견고해집니다.

문: 정토종은 죽음을 맞이할 때나 필요한 것인지요?
답: 정토종은 대비심으로 중생 구제의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토종을 닦는 자라면 응당 중생을 대신해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문: 임종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가족을 불러 이것저것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미련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승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생에 방해가 됩니다.

문: 계는 일단 받고 보는 것이 좋습니까?
답: 수계를 하고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역량에 따라 수지할 수 있는 만큼의 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 어떻게 자신을 존중합니까?
답: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속과 불교 시선으로 윤달 속 우리네 삶 분석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짓기

구미래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2천원

윤달은 나라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근신하며 액막이를 하는 등 부정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 우리 선조들은 윤달을 오히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덤으로 받은 시간' 속에서 인간을 감시하는 신들도 휴가를 떠난다고 생각했다. 즉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의 금기서 해방되는 시간으로 여겼다.

사실 윤달을 지낸 옛사람들의 생활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윤달의 길흉 양면성, 윤달에 부각되는 신(神)의 존재 유무와 성격 등에 따라 윤달에 대한 해석과 그 시간을 보내는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듯 복잡한 윤달민속의 양상을 분석해 관념적으로 변화해 온 윤달 속의 삶을 바라본다.

특히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승화시킨 불교적 관점서의 윤달에 주목한다. 불확실한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선조들은 '기도하면 감응하는 달'로 여기면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덕을 지어 왔음을 피력한다.

이런 윤달의 대표적 불교의례로 꼽히는 예수재와 삼사순례 및 가사불사를 비롯해 윤달이면 사찰을 찾아 불공을 올리고 영가천도를 하는 풍습이 오랜 역사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윤달 복 짓기' 풍습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달'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비일상의 시간'이라는 의미서 확장돼 평소 부족한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나날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윤달 불교민속을 주목한다. '생전예수재' '삼사순례' '가사불사'가 그것이다. 윤달의 대표적 불교의례인 이것들은 복을 구하는 기도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보다 큰 공덕을 실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살아 있을 때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한 불공을 드리는 '생전예수재'는 죽음을 내다보면서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의례이다. 또 세 곳의 절을 밟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사순례'는 삼보를 찾아가는 길이 곧 자신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자리요, 부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위한 발원과 성찰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옷을 스님에게 보시하는 '가사불사'는 삼보를 섬기며 불교를 꽃피워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공덕이 큰 보시다.

예수재를 비롯한 윤달의 민속은 재가신도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으로 보시를 행하게 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도록 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선업 중의 선업이며, 작은 악행이라도 과보를 피할 수 없듯 작은 선업이라도 그 과보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내용의 주가 되는 세 불교민속에 대한 저자의 시선은 '기복적' 측면에 있지 않다.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평소 부족했던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복적 불공서 벗어나 마음을 닦는 데 뜻을 두고, 삼보와 이웃을 향한 공덕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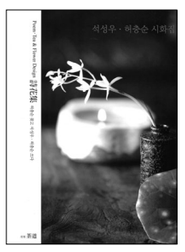
이 책은 결국 공덕을 쌓는 일에 있어 특별한 시공간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공덕을 쌓기에 힘든 중생에게 '윤달'이라는 종교적 시간 동안만이라도 참된 불자의 마음가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김주일 기자

지친 마음 치유하는 처방전
시화집(詩畵集)이 아닌 시화집(詩花集)

석성우 · 허충순 시화집

성우 스님 · 허충순 지음 | 월간 다도 펴냄/1만7천원



"흔적서린 첩첩한 소줄당/국화 한송이 쪽빛에 젖어있네/저녁을 맞듯이 바라보니/묵은 마룻결따라 행다시연 옛 모습 모시버선 걸음걸이 저미며 감도네/훗날 바람물결로 다시오면/그날도 이대로만/그날도 이대로만"(충렬사에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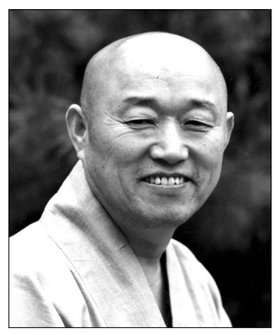
불교TV회장 성우 스님〈오른쪽 사진〉이 오랜만에 선시집을 펴냈다. 월간 〈다도〉에 연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성우 스님은 율사이지만 문학가로도 유명하다. 197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산란〉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스님은 시와 차, 태교에 관해 여러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 글들은 주로 수행 생활서 얻은 사유의 낱알들을 튼실하게 엮어 힘든 이들에게 영혼을 위로해주고 밝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특이하게도 꽃꽂이 작품을 성우 스님의 시에 곁들인 것이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따뜻한 시와 차를 마실 때 찻자리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찻자리꽃을 함께 엮었다고 지은이들은 말한다. 찻자리꽃은 서양 꽃꽂이와는 조금 다른, 동양의 선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이다.

이번 책에 실린 것들은 한국꽃꽂이협회 청향회 허충순 회장의 작품들이다. 허 회장은 엉겅퀴, 우산나물, 범부채, 코스모스, 상사화 등 다양한 화재를 써서 조아하면서도 단아한 찻자리 분위기를 연출했다.

93수의 아름다운 시와 찻자리꽃이 수록돼 있어 이 책은 시화집(詩畵集)이 아닌 시화집(詩花集)인 셈이다. 시에 그림이 아닌 꽃이 곁들어져 있다는 의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로 테마를 나눠 놓은 이



책은 총 93수의 성우 스님 선시에 허충순 회장의 찻자리꽃이 나란히 배열돼 있다. 책을 펼쳐보면 왼쪽은 회 회장의 꽃꽂이 작품이, 오른쪽에는 성우 스님의 시가 배치돼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다.

흔히 시화집(詩畵集)이라고 하면 시와 그림이 함께 들어간 책을 뜻한다. 하지만 〈석성우 · 허충순 시화집(詩花集)〉은 제목이 말해주듯 시와 꽃이 어우러졌다.

꽃에 입문한 지 50년, 거의 평생을 꽃예술과 함께 한 허충순 작가는 도자기와 같은 기물과 꽃을 매치시켜 예술로 승화

93수 아름다운 선시 수록
찻자리꽃 사진도 함께 실어

시켰다. 다도에서 찻자리꽃이라 부르는 이 장르는 대개 차를 마시며 곁에 두고 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가는 독립된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가치를 부여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이런 작품들로 가득하다. 사계절로 챕터를 나눠 라일락, 맥문동, 엉겅퀴, 산호, 아네모네, 국화, 왕풀 등 자연 그대로 담은 꽃과 오브제를 기물과 함께 책에 담아냈다. 개개의 찻자리꽃과 어울리는 시는 석성우 시인과 허충순 작가가 쓴 것들을 선별해 묶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를 꽃과 함께 읽다보면 어느새 일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잊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소반 위의 작약꽃, 허충순 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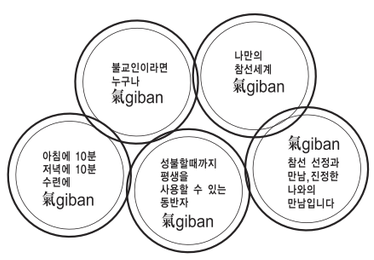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